

'아동이 웃어야 남원이 웃는다'

시·남원경찰서·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주간 집중 캠페인

남원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인근에서 남원경찰서,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주간 집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유형,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방법,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12원칙 등을 홍보했다.



남원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인근에서 남원경찰서,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주간 집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2025년 1월부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아동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이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농식품 독창성·우수성 알린다

시, 서울 국제식품산업전 코엑스 푸드위크 참여

남원시는 시식품브랜드인 '원푸드(One Food)'를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코엑스 푸드위크에 관내 농식품업체와 참가해 제품 홍보와 판촉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푸드위크는 약 900개사가 참여하고 5만 5천명이 넘는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원시 농특산물 및 식품 브랜드인 '원푸드(One Food)'가 적극 홍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코엑스 푸드위크에는 남원시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인 △아리당 △지리산처럼 △안터원목장(허만치즈) △앤디스(서아) △비즈 등이 함께 참가해 고품질 농식품을 선보이고, 이들 업체는 남원에서 생산된 신선한 원료를 만든 각종 가공식품과 특산품을 통해 남원 농식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백향과로 만든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차플, 제로드레싱, 막걸리, 맥주, 플드포크, 요거트 등 다양



한 남원 특산 제품을 코엑스 Hall A에 설치된 '백향이네 하우스'에서 남원의 특색 있는 농산물로 구성, 효과적으로 홍보 및 판매될 예정이다. 전시 현장에서 직접 구매와 시식도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주민 건강만족도 호평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감 해소 및 생활의 활력증진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308회(3,295명) 운영해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의원 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특히 우리나라 전통수련법을 응용하여 근력강화를 위한 기혈순환체조, 심신안정과 단전호흡 등을 진행한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의 만족도가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로 진행된 신체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신체통증 완화 33%, 건강 수준이 25%가 개선되었고,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다량안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임실군이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과 임실군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섬진강 예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운종교 준공식을 가졌다.

임실군, 옥정호 운종교 준공

섬진강 예코뮤지엄 진입·연계도로... 관광 연계 지역발전 교두보

임실군이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과 임실군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섬진강 예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운종교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18일 군은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종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운암면 운종리 303번지 일원에 들어선 운종교는 임실군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위한 섬진강 예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155억원이 투입됐다.

운종교는 2개의 교각으로 이루어진 220m 길이의 강합성 거더교이며, 총길이 437m에 폭 15m의 도로다.

그동안 임실군을 찾는 방문객들은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손꼽히는 옥정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외곽도로를 경유하는 수밖에 없어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과 주변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군은 이번 운종교 개성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운종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결되어 관광객의 접근성은 증대하고 임실군민의 이동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완공을 통해 인근 도시에서 옥정호 중심부까지의 이동시간이 수십여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군에서 추진 중인 섬진강 예코뮤지엄 조성사업 대상지와 수변데크길과의 접근이 용이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 명품관광 자원인 옥정호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과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관내 겨울철 화재는 203건으로 총 23억원의 재산 피해액이 발생해 겨울철 화재 발생 비율은 28.7%로 사계절 중 봄(30.1%) 다음으로 높았고, 사망자 비율은 겨울에 33.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안전대책 5대 전략 1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며, 5대 전략은 △신규·대규모 화재 예방관리 강화 △안전대책 강화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확대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총력

임실군이 지역전략작목(고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지고추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노지고추 맞춤형 자동 관수·관비 및 바이오차 활용 연구과제를 올해 초부터 3년간 진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1년 차에는 노지고추 자동 관수·관비 기술과 바이오차 차등 사용 시험으로 노지고추 수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 효과 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관비량의 차등을 주고 생산성 향상 효과 연구가 진행된다. 3년 차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 실증을 통한 노지고추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로 자동 관수 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바이오차를 사용한 탄소 저감 및 토양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비량 설정 시험으로 노지고추 작목에 있어 기존 대비 20~30%의 농가 소득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내년도에 친환경 고추재배 시범사업 1ha를 시작으로 가능성을 평가하여 점차 늘려갈 계획이며, 신기술 보급을 통한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의 맛 BI & 영상 공모전' 12월 5일까지 개최

남원시는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남원의 맛 BI & 영상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1월 4일부터 진행 중인 '남원의 맛 공모전'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남원의 맛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과 BI, 남원의 맛집을 찾는 영상 공모전까지 국민참여형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네이밍 공모 부문에는 총 203건이 접수해 1차 내부 심사와 2차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건을 선정, 최종 '남원미식, 남원미락, 자연이 빛은 남원의 맛' 3건이 BI 공모 부문에 활용, BI 공모 부문에는 △최우수작(1명) 100만원 △우수(1명) 70만원 △장려(2명) 30만원 △참가상(5명) 5만원 상당 기프트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빅데이터로 조사된 남원의 맛 집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 공모전은 △최우수(1작품) 200만원 △우수(2작품) 150만원 등 총 3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상금이 수여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namyon의맛.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이 달아 놓았는데, 이문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